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에 변동성 확대 이후 반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6일(수) 미 증시는 장 초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생산자물가(PPI) 발표에 상승 출발하였으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연준의장 해임 임박설이 불거지자 장중 낙폭 확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부인하면서 증시는 재차 안도감에 반등하며 3대 지수는 상승 마감 (다우 +0.53%, S&P500 +0.32%, 나스닥 +0.25%).

미국의 6월 생산자물가(PPI)는 전년 대비 헤드라인과 코어 각각 2.3%, 2.6%로 시장 예상치인 2.5%와 2.7%를 모두 하회, 전월대비로는 보합 기록.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최종 수요 상품 가격이 전월 대비 0.3% 상승한 반면,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전체 PPI 상승을 제한.

전일 CPI와 달리 PPI에서는 생산, 유통 업체 측에서 아직까지 관세 부담을 일부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지난 5월 수치가 상향 수정된 점(MoM, 5월 PPI 0.1% → 0.3%, 근원 PPI 0.1% → 0.4%)과 PCE 물가지수에 산출되는 PPI 내 일부 항목(MoM, 포트폴리오 운용수수료 +2.2%, 외래 진료비 +0.3% 등)이 상승했다는 점은 향후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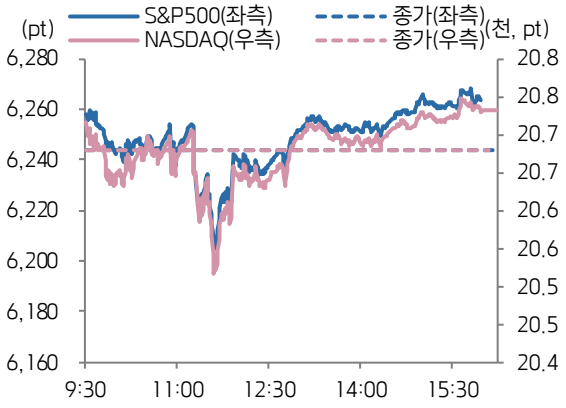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연준의장 해임이 임박했다는 내용이 주요 언론에서 보도.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증시 낙폭 확대, 장기물 금리 상승, 달러화 약세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은 낮다'고 발언한 이후 시장은 안도하며 빠르게 정상 궤도로 복귀. 다만, 당분간 연준의장 교체설과 관련한 노이즈는 중앙은행 독립성 우려를 자극해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주입할 가능성 존재. 여전히 하반기 금리 인하 경로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점에서 채권 시장 변동성이 주식시장에 전이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

특히, 장기물 금리가 여전히 4%대 수준의 높은 레벨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채 수요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제동이 걸렸던 가상화폐 3개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의원들을 설득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낙관론이 재차 부각.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 패권 강화와 미국채 수요 창출에 있어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3법 통과 여부를 주시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6월 CPI 발표에도 미국채 장기물 금리 상승 및 단기 과열 인식 속 기존 주도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결과 양 지수는 하락 마감(코스피 -0.90%, 코스닥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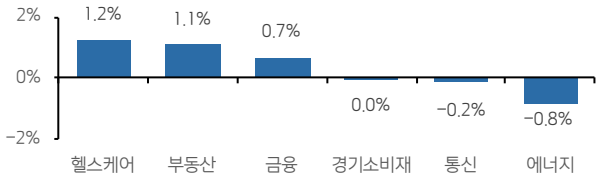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채 금리 레벨 부담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위축, 관세발 실적 전망치 하향 속 급락한 ASML(-8.3%) 쇼크 등의 영향을 반영하며 약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 뚜렷한 증시 방향성이 제한된 채 업종 측면에서도 상반기 상승 랠리를 펼쳤던 기존 주도주(조선, 방산, 원전), 정책주(증권, 은행 등)와 소외주(반도체, 2차전지 등) 간 장중 재빠른 순환매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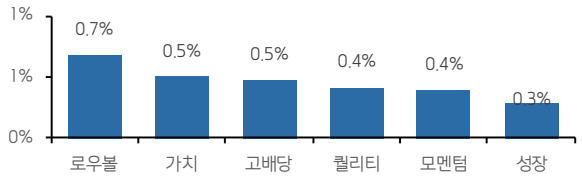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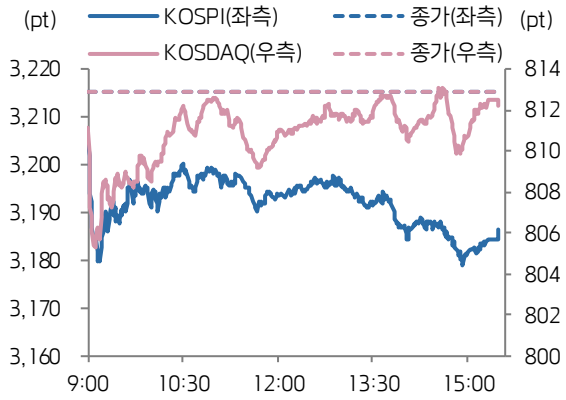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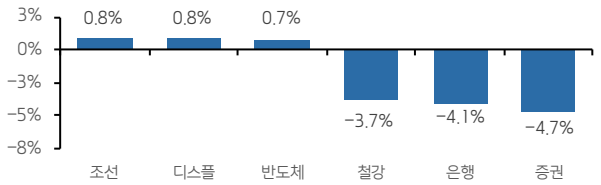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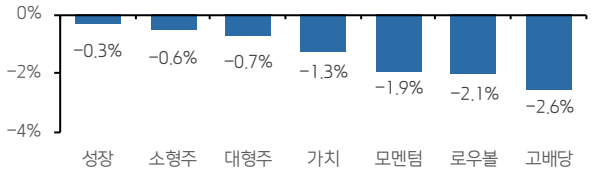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10.16	+0.5%	-15.87%	GM	53.18	+0.89%	+0.4%
마이크로소프트	505.62	-0.04%	+20.42%	일라이릴리	789.80	+2.34%	+2.69%
알파벳	182.97	+0.53%	-3.12%	월마트	95.15	-0.25%	+5.86%
메타	702.91	-1.05%	+20.25%	JP모건	285.82	-0.25%	+21.17%
아마존	223.19	-1.4%	+1.73%	엑손모빌	112.23	-0.6%	+6.23%
테슬라	321.67	+3.5%	-20.35%	셰브론	149.92	-0.51%	+5.93%
엔비디아	171.37	+0.39%	+27.63%	제너럴일릭트릭	95.15	-0.3%	+5.9%
브로드컴	280.81	-0.05%	+21.77%	캐터필러	412.88	+2.04%	+14.78%
AMD	160.08	+2.87%	+32.53%	보잉	229.90	-0.04%	+29.89%
마이크론	116.43	-3.06%	+38.65%	넥스트에라	74.77	+0.1%	+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186.38	-0.9%	+32.79%	USD/KRW	1,387.00	-0.09%	-5.79%
코스피200	431.16	-0.83%	+35.66%	달러 지수	98.29	-0.33%	-9.4%
코스닥	812.23	-0.08%	+19.76%	EUR/USD	1.16	+0.34%	+12.43%
코스닥150	1,347.27	+0.07%	+19.25%	USD/CNH	7.18	-0.06%	-2.15%
S&P500	6,263.70	+0.32%	+6.5%	USD/JPY	147.88	-0.67%	-5.93%
NASDAQ	20,730.49	+0.25%	+7.35%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4,254.78	+0.53%	+4.02%	국고채 3년	2.455	-0.5bp	-14bp
VIX	17.16	-1.27%	-1.1%	국고채 10년	2.872	-0.8bp	+0.1bp
러셀2000	2,226.99	+0.99%	-0.14%	미국 국채 2년	3.892	-4.8bp	-35bp
필라. 반도체	5,696.21	-0.39%	+14.38%	미국 국채 10년	4.455	-2.6bp	-11.4bp
다우 운송	15,820.34	-0.12%	-0.47%	미국 국채 30년	5.010	-0.9bp	+22.9bp
상해종합	3,503.78	-0.03%	+4.54%	독일 국채 10년	2.687	-2.5bp	+32bp
항셍 H	8,861.39	-0.18%	+21.56%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2,634.48	+0.08%	+5.75%	WTI	66.38	-0.21%	-4.48%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8.52	-0.28%	-8.2%
Eurostoxx50	5,298.07	-1.05%	+8.21%	금	3,359.10	+0.67%	+23.64%
MSCI 전세계 지수	920.25	-0.35%	+9.38%	은	37.85	+0.05%	+29.45%
MSCI DM 지수	4,031.20	-0.5%	+8.72%	구리	549.65	-0.89%	+36.51%
MSCI EM 지수	1,240.45	+0.97%	+15.34%	BDI	1,866.00	+4.66%	+87.16%
MSCI 한국 ETF	73.08	+0.01%	+43.6%	옥수수	424.00	+1.01%	-4.45%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41.25	+0.6%	-6.84%
비트코인	119,972.95	+3.03%	+28.02%	대두	1,020.50	+1.87%	-0.46%
이더리움	3,381.69	+11.17%	+1.05%	커피	308.45	+3.73%	+2.1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7월 1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